

설교 준비 자료: 레위기 1:1-17

설교 유형 및 톤 가이드

- 유형: 주일오전
- 핵심 톤: 교훈적·선포적
- 청중 상황: 청년부 대상
- 예화 방향: 청년층에게 공감되는 현대적 예화 + 고전적 헌신 이야기, 번제의 '전적 드림'을 삶의 헌신으로 연결
- 이 자료 활용 시 주의: 레위기 전체의 큰 그림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번제의 핵심 메시지에 집중. 제의적 세부사항보다 신학적 의미에 초점

이전 설교 이력

해당 없음 (샘플 자료)

1. 본문 및 원어 분석

본문 (Interlinear)

1절: וַיִּקְרָא אֱלֹהִים מִן הַאֹהֶל מִן הַמִּוֶּעֵד לְמֹשֶׁה וַיְדַבֵּר יְהוָה אֵלָיו מֵאֹהֶל מוֹעֵד לֵאמֹר: The LORD called Moses and spoke to him from the tent of meeting, saying: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דַּבֵּר אֶל־בְּנֵי יִשְׂרָאֵל וְאָמַרְתָּ אֲלֵהֶם אָדָם כִּי־יִקְרִיב מִכֶּם קָרְבָן לַיהוָה מִן־הַבְּהֵמָה מִן־הַבְּקָר וּמִן־הַצֹּאן תִּקְרִיבוּ: Speak to the people of Israel and say to them: When any of you bring an offering to the LORD, you shall bring your offering of livestock—of the herd or of the flock.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3절: אם־עֹלָה קָרְבָנוּ מִן־הַבְּקָר זָכָר תָּמִים יִקְרִיבוּ אֹהֶל מוֹעֵד יִקְרִיב אֹתוֹ לְרֹצֵנוּ לִפְנֵי יְהוָה: If the offering is a burnt offering from the herd, you shall offer a male without blemish; you shall bring it to the entrance of the tent of meeting, for acceptance on your behalf before the LORD.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 וְסָמַדְדָּ יָדְךָ עַל רֹאשׁ הָעֹלָה וְנִרְצָה לְךָ לְכַפֵּר עָלָיו: You shall lay your hand on the head of the burnt offering, and it shall be acceptable on your behalf as atonement for you.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지라

5절 וְשָחַט אֶת־בְּנֵי הַבְּקָר לִפְנֵי יְהוָה וְהִקְרִיבוּ בְנֵי אֹהֶל הַכֹּהֲנִים אֶת־הַדָּם וְזָרְקוּ אֶת־הַדָּם עַל־הַמִּזְבֵּחַ סָבִיב אֲשֶׁר־: פְּתַח אֹהֶל־מוֹעֵד: The bull shall be slaughtered before the LORD; and Aaron's sons the priests shall offer the blood, dashing the blood against all sides of the altar that is at the entrance of the tent of meeting. 그가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6절 וְהַפְּשִׁיט אֶת־הָעֹלָה וְנָתַח אֹתָהּ לְנִתְחֶיהָ: The burnt offering shall be flayed and cut up into its parts. 그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뜯을 것이요

7절 וְנִתְּנוּ בְנֵי אֹהֶל הַכֹּהֵן אֵשׁ עַל־הַמִּזְבֵּחַ וְעָרְכוּ עֵצִים עַל־הָאֵשׁ: The sons of Aaron the priest shall put fire on the altar and arrange wood on the fire.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 제단 위에 불을 놓고 불 위에 나무를 벌여 놓고

8절 וְעָרְכוּ בְנֵי אֹהֶל הַכֹּהֲנִים אֶת הַנְּתָחִים אֶת־הָרֹאשׁ וְאֶת־הַפֶּדֶר עַל־הָעֵצִים אֲשֶׁר עַל־הָאֵשׁ עַל־הַמִּזְבֵּחַ: Aaron's sons the priests shall arrange the parts, with the head and the suet, on the wood that is on the fire on the altar.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각 뜯 것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여 놓을 것이며

9절 וְקִרְבוּ וְכִרְעִיו יְרֵחָן בְּמַיִם וְהִקְטִיר הַכֹּהֵן אֶת־הַכֹּל הַמִּזְבֵּחַהּ עֲלֵהּ אֲשֶׁהּ רֵיחַ־נִיחֹחַ לַיהוָה: But its entrails and its legs shall be washed with water. Then the priest shall turn the whole into smoke on the altar as a burnt offering, an offering by fire of pleasing odor to the LORD.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번제라 화제로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0-13절 (양이나 염소의 번제) 양이나 염소 중 번제물을 드리려면 역시 흠 없는 수컷을 가져와 제단 북쪽에서 잡되, 동일한 절차(피 뿌림, 각 뜨기, 세척, 불사름)를 따른다. 이 역시 "화제로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14-17절 (새의 번제) 가난한 자를 위한 대안으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릴 수 있다. 제사장이 제단으로 가져가 머리를 비틀어 끊고, 피를 제단 곁에 흘리며, 모이주머니와 깃을 제거한 뒤 제단 위에서 불사른다. 이 역시 "화제로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핵심 어휘

원어	음역	문법 형태	의미 범위
וַיִּקְרָא	wayyiqra' 와이크라	Qal 와우연속 형 3ms	부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심. 레위기의 히브리 어 명칭(와이크라)의 어원
קָרְבָּן	qorbān 코르반	명사, 남성 단 수	예물, 봉헌물. 어근 קרב(가까이 가다)에서 파생.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가는 것
עָלָה	'ōlā 올라	명사, 여성 단 수	번제. 어근 עלה(올라가다)에서 파생. 제물 전체가 연기로 올라감을 의미
תָּמִים	tāmīm 타뫼뫼	형용사, 남성 단수	흠 없는, 온전한, 완전한. 도덕적·물리적 완전함
סָמַק	sāmak 사마크	Qal 완료형 3ms	안수하다, 기대다, 누르다. 강한 압력으로 손을 얹는 행위
כִּפֵּר	kipper 킵페르	Piel 부정사	속죄하다, 대속하다. 어근 כפר. 제의적 용어로 죄의 결과를 제거함
זָרַק	zāraq 자라크	Qal 완료형 3cp	(피를) 뿌리다, 끼었다. 제단 사방에 피를 던지는 의례 행위
הִקְטִיר	hiqtîr 히티르	Hiphil 완료형 3ms	(향으로) 태우다, 연기를 피우다. 제물을 불에 태워 향기로 올리는 행위
אִשָּׁה	'iššeh 이셰	명사, 남성 단 수	화제(火祭) 또는 예물. 전통적으로 '불의 제사'로 번역되나 '예물'의 의미가 유력
רֵיחַ נִיחֹחַ	rēaḥ nîḥōaḥ 레아흐 니호 아흐	명사 연계형 + 명사	향기로운 냄새, 진정시키는 향. 하나님의 기쁨과 수납을 표현하는 의인화적 표현

문법적 특징

- 와우연속형(wayyiqtol) 서사체:** 1절의 וַיִּקְרָא...וַיִּבְרַךְ는 전형적인 히브리 서사체로, 출애굽기 마지막(40:38)에서 레위기로의 서사적 연속성을 보여준다. 레위기는 독립된 법전이 아니라 시내 산 서사의 일부이다.
- 조건문 구조:** 2절의 כִּי יִקְרִיב (~하러거든)는 사례법(casuistic law) 형식으로, 번제가 자발적 행위(의무가 아닌 선택)임을 나타낸다.

- 3. **평신도와 제사장의 역할 교대**: 3-9절에서 3인칭 단수(바치는 자)와 3인칭 복수(제사장들)의 동사가 교대로 등장한다. 바치는 자가 가져오고(히크리브), 안수하고(사마크), 도살하고(샤하트), 각을 뜨는(나타흐) 반면, 제사장은 피를 뿌리고(자라크), 불을 놓고, 태운다(히티르). 이 교대 구조는 제의가 공동 작업임을 보여준다.
- 4. **לְצַחֵן(리르초노)** — "기쁘게 받으시도록": 3절의 이 표현은 라촌(רִצּוֹן, 기쁨/수납)에서 파생된 것으로, 제물이 하나님께 열납(acceptance)되는 것을 입증하는 제의 전문 용어이다.

번역 비교

구절	개역개정	새번역	NRSV
1:2 קָרָבָה	예물	제물	offering
1:3 מִמִּטָּה	흠 없는	흠이 없는	without blemish
1:4 יָדְךָ	안수할지니	손을 얹으면	lay your hand
1:4 כִּפּוּרָה	속죄가 될지라	속죄가 이루어질 것이다	as atonement
1:9 אֵשׁ	화제	화제	offering by fire
1:9 רִיחַ נְיָחָה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	pleasing odor

주요 차이: NRSV는 אֵשׁ를 "offering by fire"로 번역하나, 최근 학계(Hartley, Milgrom)에서는 이를 어근 שָׂא(불)가 아닌 별도의 어원으로 보아 단순히 "예물(gift)"로 해석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2. 역사적/문화적 배경

고대 근동의 제사 문화

번제(올라)는 이스라엘 고유의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전역에 존재했던 보편적 종교 행위였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우가릿 등에서 신에게 동물을 태워 바치는 관행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번제는 결정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었다: (1) 오직 한 분 하나님(유일신)께만 드려졌고, (2) 우상이나 형상 없이 드려졌으며, (3) 성막이라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드려졌다.

시내 산 맥락: "회막에서"

레위기 1:1의 "회막에서"(מִמִּזְבֵּחַ מִן־הָאֵשׁ)라는 표현은 이 법이 주어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서 모세조차 들어

갈 수 없었다(출 40:35). 레위기는 바로 그 다음 순간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이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신다"(와이크라).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 사이의 거리를 전제하면서도, 하나님이 먼저 그 간격을 좁히고자 부르시는 은혜의 행위이다.

번제의 사회경제적 의미

번제물로 허용된 세 등급의 제물(소, 양/염소, 새)은 이스라엘 사회의 경제적 계층을 반영한다. 소 한 마리는 고대 가정의 가장 귀중한 재산으로, 노동력이자 우유·고기·가축의 원천이었다. 흠 없는 수컷을 바치라는 요구는 가장 가치 있는 짐승을 드리라는 뜻이다. 동시에 비둘기를 허용한 것은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한 배려이다. 세 등급의 제물 모두에 대해 동일하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선언함으로써, 제물의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피의 의미

고대 이스라엘에서 피(דָּם, 담)는 생명 그 자체와 동일시되었다(레 17:11).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행위(자라크)는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상징적 행위였다. Milgrom은 이를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동물의 생명을 취한 대가로 그 피(생명)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 피 의례를 통해 번제는 단순한 태움이 아니라 생명의 교환이라는 깊은 신학적 의미를 갖게 된다.

안수(אָנָּשׁ)의 의미

바치는 자가 짐승의 머리에 손을 강하게 누르는 행위(사마크)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1) 소유권의 표시: 이 짐승이 나의 것임을 선언, (2) 동일시: 바치는 자가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 (3) 공식적 양도: "이 동물을 제의적 죽음에 공식적으로 넘겨줌"(Knierim). 어떤 해석을 취하든, 안수는 제물과 바치는 자 사이의 긴밀한 연결을 확립하는 행위이다.

3. 학술 자료

주석서 비교

1. WBC 레위기 (John E. Hartley)

Hartley는 레위기 1장의 번제 의식을 일곱 단계로 분석한다: (1) 드리기/가져오기(히크리브), (2) 안수(사마크), (3) 도살(샤하트), (4) 피 뿌림(자라크), (5) 각 뜨기(나타흐), (6) 내장과 다리 세척(라하츠), (7) 태우기(히티르). 그는 이 의식의 특징적 방식이 "바치는 자와 제사장 사

이의 행위의 교대"라고 지적한다. 초기 시대에는 바치는 자가 더 능동적이었으나, 제의가 형식화되면서 제사장의 역할이 확대되었다(pp. 132-135).

Hartley는 올라(עֹלָה)의 어원을 "올려놓다, 올라가다"에서 찾으며, 짐승 전체가 불에 태워지는 것과 일치한다고 설명한다. 번제가 "홀로코스트"(holocaust)로 번역되기도 했으나, 이 단어의 현대적 의미를 고려하여 더 이상 적절한 번역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번제는 이스라엘 제의의 "주요 희생"으로서 매일 아침 드러졌고, 특정한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치는 자의 "일반적인 죄의 성향"을 위한 속죄로 기능했다(pp. 135-139).

2. Eerdmans Commentary on the Bible

Eerdmans 주석은 번제가 최고의 지위를 가지며 공동체의 일상적 제사(출 29:38-42)를 구성했다고 설명한다. 1:4의 안수(hand-pressing)에 대해 "이 예물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도록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는 표현을 주목하면서, 번제가 속죄적 기능을 갖지만 속죄제·속건제와 달리 드러야 할 상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있기에, 이 표준적 제사는 언제나 은혜롭게 속죄를 위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해석한다(pp. 128-129).

3. Milgrom (Anchor Bible Commentary, 참조)

Jacob Milgrom의 기념비적 주석(Oxford Bibliographies: Sacrifice에서 참조)은 안수의 의미를 "이 짐승이 드리는 자의 소유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해석하며(1991:151-53), 이것이 새와 곡물 제사에서는 요구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새와 곡물은 손으로 들고 가기 때문). 그러나 Knierim은 이것이 단순한 소유권 표시를 넘어 "동물의 제의적 죽음에 공식적으로 넘겨주는 행위"라고 반론한다(1992:38).

쟁점: 번제(올라)의 일차적 기능

주석서/학자	입장	근거
Hartley (WBC)	경의와 헌신의 행위 + 일반적 죄성의 대속	번제에 특정한 죄의 언급이 없음; 카파르는 후대의 신학적 해석
Eerdmans	속죄적 기능 (포괄적)	1:4의 "속죄를 위하여" 명시; 인간의 항상적 죄인 됨 전제
Milgrom	성소의 정결 유지	제의 전체가 성소의 정결에 초점; 번제 자체보다 피 의례가 핵심
de Vaux / Kraus	경의와 헌신의 예물	어원(올라=올라가다)이 헌신적 의미 지지; 속죄는 부차적

주석서/학자	입장	근거
Watts	수사학적 권위 확립	번제 규정은 제사장 권위를 설득하기 위한 수사적 텍스트

→ 번제의 기능은 단일하지 않다. 헌신·속죄·교제의 다층적 의미가 공존하며, 이는 번제가 이스라엘 제의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희생이었기 때문이다.

학술 논의

1. Jonathan Klawans — *Purity, Sacrifice, and the Temple* (Oxford, 2005)

Klawans는 이스라엘 희생 제의의 두 가지 "조직 원리"(organizing principles)를 제시한다: (1)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imitatio Dei), (2)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오고 유지하는 것. 그에 따르면, 매일 드려지는 번제의 목적은 "속죄가 아니라 향기로운 향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올려 보내어 성소 안의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는 것"이다(p. 72). Klawans는 번제를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행위로 보며, 여기에는 "죄 있는 사제도, 무고한 희생물도 없다.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동물이며, 이스라엘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p. 73).

2. Bryan D. Bibb — *"Blood, Death, and the Holy in the Leviticus Narrative"* (Oxford Handbook, 2015)

Bibb는 레위기를 단순한 법전이 아니라 "서사"(narrative)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레위기 1장의 제의 지침은 "신화적 과거에 뿌리를 둔 것"으로서, 추상적이거나 시대 초월적이 아니라 시대 산 서사라는 구체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서사와 의례의 교차는 "하나님의 거룩에 가까이 사는 것의 긴장과 모호성을 협상하는" 문학적 전략이다(pp. 138-140).

3. Samuel L. Boyd — *"Applied Ritual: Blood and Oil on Bodies in the Pentateuch"* (Biblical Interpretation, 2021)

Boyd는 의례 이론과 문서 가설을 결합하여, 출 19-24, 레 8, 14장의 피 바름 의례를 분석한다. 그는 제사장(P) 자료에서 제단과 성소가 "신성과 인간의 접점(nexus)"으로 기능하며, "누가 신적 거처의 어느 부분에 접근하는가"의 문제가 의례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서 번제의 피 뿌림은 단순한 속죄가 아니라 신적 공간에 대한 접근 자격을 확립하는 행위이다(pp. 120-124).

4. James W. Watts — *"Olah: The Rhetoric of Burnt Offerings"* (VT, 2006)

Watts는 레위기 1장의 번제 규정을 수사학적으로 분석하여, 이 텍스트가 독자들에게 "그 권위와 제의를 통제하는 제사장들의 권위를 설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번제가

제물 목록의 맨 앞에 놓인 것은 그것의 최고 지위를 수사적으로 확립하기 위함이며, 꼼꼼한 절차 묘사는 제사장 권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5. Alfred Marx — "The Theology of Sacrifice According to Leviticus 1-7" (VTSup 93, 2003)

Marx는 레위기 1-7장의 희생 규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 말하는 "암묵적 신학"에 주목한다. 그는 교제를 확립하는 제물(번제, 화목제)과 관계의 파열을 해결하는 희생(속죄제, 속건제)을 구분하며, 번제는 전자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교부 해석 (Patristic)

1. 오리겐 (Origen) — 레위기 강해 (Homiliae in Leviticum)

오리겐은 레위기의 제의 규정을 철저히 영적으로(allegorically) 해석했다. 그에게 번제물은 그리스도를 예표(typology)하며, "흠 없는 수컷"은 죄 없는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상징한다. 안수는 믿는 자가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하는 것을 나타내며, 제물이 "온전히 태워짐"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기 포기를 의미한다. 또한 오리겐은 세 등급의 제물(소, 양, 새)을 신앙의 세 수준으로 해석했다: 소를 드리는 자는 가장 성숙한 신자, 새를 드리는 자는 초보적 신자이다.

2. 아우구스티누스 (Augustine)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약의 제사 전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그림자"(umbra)로 보았다. 그에게 번제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이것이 로마서 12:1("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의 배경이 된다. 제물을 "온전히 태움"은 "자기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의 상징이다.

사전 항목

Oxford Bibliographies: Sacrifice (William K. Gilders, 2010)

Gilders는 "sacrifice"의 정의를 "초자연적 존재와 관련하여 동물을 의례적으로 도살하고 그 몸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히브리어 핵심 용어 코르반(קָרְבָּן)은 "앞으로 가져온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고대 이스라엘의 근본적 이해를 반영한다고 설명한다. 번제와 관련된 핵심 쟁점으로 Eberhart(2002)의 "제단 위 태움이 모든 희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주장과, McClymond(2002)의 "도살/죽임이 과도하게 강조되어 왔다"는 반론을 소개한다(pp. 1-7).

4. 관련 본문 (Cross-references)

병행본문

- 창세기 8:20-21 — 노아의 번제: 홍수 후 노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라는 표현이 레 1:9와 동일한 구문(레아흐 니호아흐)을 사용
- 창세기 22:1-19 —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번제"(올라)라는 용어가 동일하게 사용됨. "흠 없는 수컷" 대신 하나님이 직접 제물을 마련하심(22:13)
- 출애굽기 29:38-42 — 매일의 상번제: 아침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의 규정.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드릴 상번제"
- 민수기 28-29 — 절기별 번제 규정 상세

인용/암시

- 시편 51:16-19 — "주께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니...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형식적 제사에 대한 예언자적 비판과 내면의 헌신 강조
- 호세아 6:6 —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의 외적 형식을 넘어선 내적 순종 요구
- 로마서 12:1 —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번제의 신약적 재해석

주제적 연결

- 히브리서 10:1-18 — 구약 제사의 불완전함과 그리스도의 단번의 완전한 제사
- 에베소서 5:2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레위기 1장의 "향기로운 냄새" 구문을 직접 반영

5. 관련 이미지 자료

1. 노아의 제사 —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Michelangelo Buonarroti) (1508-1512)



- **시대/화풍:** 르네상스 전성기, 시스티나 천장화
- **소장처:** 시스티나 예배당, 바티칸 시국
- **해석:** 홍수 후 노아가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창 8:20). 미켈란젤로는 고전적 부조(relief) 구성을 채택하여 제단을 중심에 놓고,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묘사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이른 번제 장면 중 하나이며, 레위기의 번제 규정이 형식화하기 이전의 자발적 번제의 원형을 보여준다.
- **설교 활용:**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첫 순간,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번제를 드렸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난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감사의 전적 드림이었습니다."

2. 이삭의 번제를 막는 천사 — 렘브란트 판 레인 (Rembrandt van Rijn) (1636)



- 시대/화풍: 바로크, 극적 명암(키아로스쿠로)
- 소장처: 알테 피나코테크, 뮌헨
- 해석: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올라)로 드리려는 극적 순간을 포착했다. 렘브란트는 아브라함의 손에서 칼이 떨어지는 찰나를 묘사하여 인간적 고뇌와 신적 개입의 긴장을 극대화한다. 이 장면은 번제의 핵심 —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림" — 을 가

장 극적으로 보여주며, 기독교 전통에서 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예표로 읽어왔다.

- **설교 활용:** "번제는 '전부 드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시고, 또한 하나님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독생자)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3. 가인과 아벨의 제사 — 베르트람 폰 민덴 (Bertram von Minden) (1383)



- **시대/화풍:** 후기 고딕, 제단화
- **소장처:** 함부르크 쿤스트할레, 함부르크
- **해석:** 가인과 아벨이 각자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다. 아벨은 양떼의 첫 새끼와 그 기름(창 4:4)을 드리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린다. 고딕 양식의 금빛 배경은 제사의 거룩한 성격을 강조하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열납하시는 순간을 시각적으로 구분한다. 이것은 레위기 번제 규정 이전의 가장 원초적 제사 장면으로, "무엇을 드리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핵심임을 보여준다.
- **설교 활용:** "아벨은 '첫 것'과 '기름진 것'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것을 드린 것입니다. 레위기가 '흠 없는 수컷'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것이 아니라 첫 것을 원하십니다."

4. 가인과 아벨 — 티치아노 베첼리오 (Tiziano Vecellio, Titian) (1542-1544)



- **시대/화풍:** 르네상스 전성기 / 매너리즘, 천장화
- **소장처:**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 성당, 베네치아

- **해석:** 티치아노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극적 순간을 역동적으로 묘사했다. 이 작품은 《이삭의 번제》, 《다윗과 골리앗》과 함께 세 폭으로 제작되어 "희생"이라는 공통 주제를 탐구한다. 번제를 드린 아벨의 죽음은 역설적이게도 그 자체가 하나의 번제가 되며, 기독교 전통에서 이를 그리스도의 죽음의 예표로 읽어왔다.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구도(천장화)는 관람자를 사건 속으로 끌어들이는다.
- **설교 활용:** "아벨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물을 드린 바로 그 이유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4는 '믿음으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헌신에는 때로 대가가 따릅니다."

6. 예화

본문은 하나의 단락(번제 규정 전체)으로 구성되므로, 5개의 예화를 배분합니다.

[콜베 신부의 대속적 죽음] 제2차 세계대전 중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탈출자가 생기자, 보복으로 10명을 굶겨 죽이기로 했다. 무작위로 선택된 한 젊은 아버지가 절규할 때, 막시밀리아노 콜베 신부가 나섰다. "저 사람 대신 제가 죽겠습니다." 콜베는 굶주림의 지하실에서도 함께 갇힌 이들을 위로하며 찬송을 불렀고, 마지막까지 다른 이들을 섬기다 순교했다. → **본문 연결:** 번제는 제물이 "온전히 태워지는" 희생이다(1:9). 콜베의 삶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 번제적 삶의 실례이며, 레위기 1:4의 "안수"처럼 자발적으로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었다. → **출처:** Patricia Treece, *A Man for Others: Maximilian Kolbe, Saint of Auschwitz* (Harper & Row, 1982)

[진젠도르프 백작의 회심] 18세기 독일의 젊은 귀족 니콜라우스 폰 진젠도르프(Nikolaus von Zinzendorf)는 뒤셀도르프 미술관에서 도메니코 페티의 그림 《이 사람을 보라》(Ecce Homo) 앞에 섰다. 가시관을 쓴 그리스도 아래 쓰인 글귀를 읽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그 순간 귀족의 호화로운 삶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진젠도르프는 평생을 피난민 구호와 선교에 헌신하여 모라비안 교단을 세웠다. 이후 모라비안 교단의 100년 쉬지 않는 기도 운동은 근대 선교 운동의 불씨가 되었다. → **본문 연결:** 번제물은 "흠 없는 수컷"이어야 했다(1:3). 진젠도르프는 가장 좋은 것(귀족의 특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의 전적 헌신은 번제의 "올라"(전부 올라감)의 정신을 구현한다. → **출처:** 한경직 목사, "나의 자라는 오직 십자가" (갈 6:11-18 설교)

[무디의 온전한 헌신] 19세기 미국의 D.L. 무디(Moody)가 한 설교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세계가 볼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한 사람의 삶이다." 무디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특별히 재주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다. 그러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다." 정규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구두 세일즈맨이었던 그는 이 결심

하나로 19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부흥사가 되었고, 무디 교회와 무디 성경학교를 세워 수만 명의 삶을 변화시켰다. → **본문 연결**: 번제에서 드리는 짐승의 크기는 달랐지만(소, 양, 비둘기), 핵심은 동일했다 — "전부를 태움"(1:9, 13, 17). 무디의 이야기는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온전한 드림"이 핵심이라는 번제의 원리를 보여준다. → **출처**: 한경직 목사, "거룩한 산 제사" (롬 12:1-13 설교)

[**길선주 장로의 기도**] 1903년, 26세의 청년 길선주는 평양에서 한 선교사의 메시지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아 손을 들어 결심했다. "주님, 제가 온전히 주님께 굴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단순한 기도와 결심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단초가 되었다. 20세기 초 세계적 부흥 운동의 시작은 한 청년의 전적 순복이었다. → **본문 연결**: 레위기 1:4의 안수는 바치는 자가 제물의 머리에 "강하게 눌러" 자신과 제물을 동일시하는 행위이다. 길선주의 결심은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안수하여 드리는" 행위와 같다. → **출처**: 이동원 목사, "성숙" (벧전 2:1 설교)

[**사막의 교부 안토니우스**] 3세기 이집트의 부유한 청년 안토니우스(Antonius)는 교회에서 마태복음 19:21("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을 들었다. 그는 성경을 읽고 집에 가서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이들을 구제했다. 자신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광야로 나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몸바쳐 살았다. 이후 그는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가 되었고, 아타나시우스가 쓴 그의 전기는 서방 기독교의 영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본문 연결**: 번제(올라)의 본질은 제물의 "전부를 태움"이다 — 가족을 제외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1:6-9). 안토니우스는 문자 그대로 자기 소유의 전부를 내려놓고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린 삶의 번제였다. → **출처**: 한경직 목사, "바울의 의분노" (행 17:16-37 설교); Athanasius, *Life of Antony* (ca. 360)

연구자료 끝